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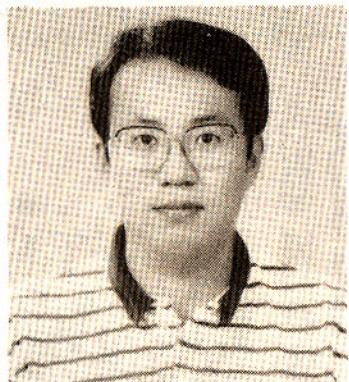
經濟人 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첫번째 환영객:
영어문제

필자는 중화민국의 국립대 만대학에서 석사과정을 履修한 바 있었다. 필자야, 지가 좋아서 지가 미리부터 공부한 중국 어로 지 학교를 다니니 별반 문제가 없었지만, 이 알량한 필자하나 믿고, 황당한 대만으로 시집을 와준 필자의 처는 중국어라고는 정말로 “이얼싼쓰”도 모르고 대만에 왔다. 그렇게 당황해 있고 불안해 하고 있던 필자의 처를 필자가 중국어 기초코스에 등록을 시켰는가하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길을 깨치면 자기가 아는 다른 곳에 찾아 갈까봐, 아예 도착하자마자, 유명한 중국요리학원에 곧장 등록을 시켜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 불쌍한 필자의 처는 중국어를 귀로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3개월 그렇게 고생하고 났더니, 술술 따라가기 시작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났더니, 시장에 가고 어데를 가도, 자기 혼자서 술술 이야기를 잘 했다. 그래서, 필자는 요때다 싶어서, 중국어 초급이고 중급

이고 나발이고 모두 생략하고 고급과정에 필자의 처를 곧장 등록을 시켰다. 그리고 한 일년 정도 지났더니, 한국서 중문과 나오고, 대만에 중국어 유학은 사람보다 발음이고 무어고 필자의 처가 몇 수 위임을 보았다. 제일 통쾌했던 순간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 오시고, 중국 사람들도 여럿 모이고, 대만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어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 중하나가, ‘중국어로 조기(생선)가 뭐요?’라고 물었는데, 중문과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고 원래 생선 이름같은 것은 어려운 법이어

서 전부 끌먹은 병어리처럼 뚝뚝부답이었는데, 어데선가 조그만 여자 목소리가 ‘황--위--’하고 들려오는데, 다름아닌 필자의 집사람의 목소리였다. 모두들 크게 놀라고, ‘미세스 김 언제 중국어를 그렇게 배웠느냐?’하며 필자의 처가 완전히 타이페이의 한인사회에서 영웅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처는 ‘저 어떻게 쓰는 것 인지는 몰라요’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은 “으악! 겸손까지 하다”며 박수가 터져나오고 우리 처는 오히려 더 영웅이 되었고 필자도 옆에서, ‘당신은 거 왜 쓸데없이 나서고 그러쇼?’라면서 덩달아 입이 찢어지고 어깨가 으쓱해진 적이 있다. 요리학원서 손을 데어가며 배운 중국어가 정말로 크게 한번 힘을 쓰는 순간이었다. 어학이란 정말 그렇게 배워야한다. 자기가 필요한 그 시류에이션에 몸으로 부딪혀서 귀로 배우고 익숙해지면 그 때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여야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시류에이션에 갈일이 있다 고 하자. 예를 들어, 운전면허

를 내려 갈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필자 같으면, 아예 가기전에 질문 사항을 적어간다. 그리고 내가 할말은 미리 작문을 하여 몇번이고 연습을 하고 간다. 하물며, 집을 사거나 가게를 사거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같이 다리고가는 한국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해결하여야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집에서 미리 작문을 해가야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상대가 못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자리에서 적어달라고 해라. ‘내가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겠으니, 지금 하신 말, 그것을 적어주시지 않겠습니까?’하면서 적어달라고 해라. 그리고, 무방하다면, 녹음을 하여 달라고 해라. 그리고, 집에가서 공부하고 또 오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또 해라. 그렇게 성실하게 접근하면 상대는 오히려 좋아한다. 그리고, 이 쪽에서도 실수가 없어 진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자료들은 그 사람에 관한 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영어 참고서가 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만 잔뜩 적혀 있는 공책, 그사람에게 필요한 말만 잔뜩 들어 있는 녹음테이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데 있겠는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오우 예!’하면서 알아 듣는 척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상대가 금방 알아챈다. 그리고, 귀하의 놀변, 즉 低能은 순식간에 만천하에 宣布가 된다. 여기서는 망할려면 제일 빠른 두 길이

있는데, 아무 서류에다 마구 싸인하고, 모르는 말에 “예스 예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말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가거나 외워가고, 못알아 듣는 말은 적어달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을 시작하면 그런 일이 미구에 방지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족적 체면을 개인적으로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필자가 제일로 중요시하는 바로 그 재산을 보존하는 길이다. 말이 모자라면, 괜히 다른 것을 가지고 품을 잡게 된다. 으쓱해서 따져 보지도 못하고 병신같이 비싼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끌에 가격을 깎으려고 말도 안되는 에누리를 시작할려다 오히려 망신 살만 빼친다. “할말을 적어 가라. 그리고 녹음을 해라. 적어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또 만나자 그래라.”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면, 오히려 존경받는다. 장사도 성공한다. 그리고, 영어도 금방 는다. 잘 알아 듣지도 못했으면서, ‘오우 예에’하고 영화에서 미국 배우들이 하는 소리나 흉내내다간 개망신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운수 사나우면, 총알 맞는 수까지도 있다.

영어에 관해서 필자가 꼭 하고 싶은 또하나의 말은 “말을 천천히 해라”라는 부탁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를 할 때 대부분 말이 너무 빠르다. 그것이 유창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쌈스럽게 들릴 뿐이다. 유식한 어휘를 천천히 구사하는 것이 지혜롭게 들린

아랫면에 계속

다. 특히 동양 사람이 유식한 어휘를 구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럽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유노우? 유노우?’ 이런 잡소리를 계속 넣어가면서, ‘유치한 중화1년생 단어’를 마구 잡아서 쓸

아부으면, 당신이 설사 유식하다하더라도, 아니 사실은 유식하지 않지만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도 그렇게 보이지를 않게 된다. 그런 영어가지고는 막 도착한 同族 등쳐먹는 일밖에는 아무런 의미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또, 필자도 목소리의 룬이 너무 높은 편인데, 우리 나라 사람은 옥타브를 한 옥타브 낮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 동양 사람은 전반적으로 룬이 너무 높다. 보통의 경우는 싸움하는 듯이 들리고,

실한 경우는 개짖는 것 같이 들린다. 우리는 침묵의 문화에서 왔다. 이곳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안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여 야한다. 천천히 차근 차근 집에서 준비해간 그 유식한 영어를 조용히 또박 또박 말을 해라.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